

# 반성없는 사립유치원... 원장들 '3법 반대 댓글조작' 의혹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유치원 3법' 원장들이 교사들에 반대댓글 지시 댓글 내용 "법안, 사유재산권 침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댓글을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사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7일 13시를 기준으로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댓글이 많은 관심입법예고를 보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무려 7677건의 댓글이 달려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어 사립학교법(6152건), 학교급식법(5792건)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3개 법안에 달린 댓글을 모두 합하면 2만건에 육박해 타 입법예고 1건당 1000건 내외의 댓글이 달리는 것과 비교된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법안은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부당 사용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목 : 반대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고 부모님들께 교육기관을 선택하라고 하세요 왜 이제껏 자기들이 편하자고 기관에 몰아서 쥐서 불법이니 비리니 난리입니까 학부모님께 바로 주면 유치원 기관들도 오히려 업무가 줄고 더 좋습니다.

6941	반대합니다
6940	반대합니다
6939	반대합니다
6938	반대합니다.
6937	반대합니다
6936	반대합니다
6935	반대합니다

7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에 대한 댓글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법안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과 같다. /법처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방지하고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됐다.

댓글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특히 유치원 원장들이 교사들에게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도 제기됐다. 자신을 사립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6일 수도권 맘 카페 카카오톡 대화방에 "(원장이)법안에 반대 댓글을 달라고 교사들에게 시키고 있다"며 "사립 원장님들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이 누리꾼은 "(원장들은)사유재산을 지킬 생각뿐이다. 유치원에서 강요하는게 너무 어이 없어서 여기 올랐다"며 "지금 도배되는 반대 댓글들은 원장들이 교사에게 시켜서 올라가는 글들입니다. 댓글까지도 써주거나 복사하는 식"이라

고 했다. 특히 반대 댓글 내용을 보면 '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정부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쥐,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과 동일하다.

반대글을 올린 차 모 씨는 "국공립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사립유치원 설립은 철저하게 개인의 노력과 투자로 이뤄졌음에도 사립유치원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유치원비 일부가 국가자금에서 들어온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을 공공재로 보고 국공립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사립유치원이 경쟁을 바탕으로 설립자와 원장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쓰는 현실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했다.

또 김 모 씨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주는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해주시길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강 모 씨는 "지원금이던 보조금이던 학부모님께 지급해 주시고 부모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학부모나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하면서 반대 댓글을 다는 경우도 많다. 사립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백 모 씨는 "누리 지원

금 서류 하느라 수업도 퇴근도 제대로 못한다"며 "에듀과인 도입은 지금 우리 현장 인력의 열악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교사들에게 업무가 더욱 가중될 에듀과인은 현장에서는 원치 않는다"고 했고, 차 모 씨는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반대한다"며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원해주고 사립유치원에게 자율교육권을 주고 선택권을 부모에게 주는 것을 원한다"고 썼다.

이런 댓글에 대해 맘 카페 누리꾼은 "그럴줄 알았다"며 "저는 동의버튼 누르고 의견도 남기고 나왔는데, 반대가 압도적이더라구요. 무슨 알바생을 풀줄 알았다"고 혀를 찼다.

한편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속속 늘면서 유치원 입학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를 했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이는 나흘 전인 지난 2일보다 폐원 안내는 9곳, 폐원신청 유치원은 1곳이 증가한 것이다. 또 원아 모집 설명회를 열지 않거나 보류하는 유치원들도 많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숙명여대가 여성 IT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3일 개최한 '숙명 우먼인테크 해커톤' 대회에서 임산부 좌석 알림이 시스템을 발표한 '자리를 찾아조' 팀이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숙명여자대학교

## 숙명여대 IT인재 육성... '숙명 우먼인테크 해커톤' 성료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는 우수 여성 IT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3일 개최한 '숙명 우먼인테크 해커톤' 대회에서 임산부 좌석 알림이 시스템을 발표한 '자리를 찾아조' 팀이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7일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구성원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 창출과 서비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뜻한다.

이번 대회는 여성 개발자의 개발능력

향양과 관련 분야 여성 진출을 늘리기 위해 숙명여대가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 후원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총 120여명의 전국 여자 대학생과 대학원생과 일반인이 참여했다.

대상을 차지한 지하철 임산부 좌석 알림이 시스템은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임산부 배려석을 확인할 수 있고, 블루투스 같은 센서를 좌석에 붙여 작성자가 임산부가 아닐 경우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시스템이다. /한용수 기자

# 오프라인 대학보다 탐방·특강 많은 사이버대는?

##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

여름마다 日 대학에 학생 상호 파견

"사이버대학이지만 일반 오프라인 대학보다 현장 탐방·특강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미디어와 콘텐츠를 융합하는 '에듀 테인먼트(edutainment) 프로그램'의 일환이지요."

한양사이버대학교광고미디어MBA가 사이버대 대학원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대는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이 어려운 기업 CEO와 전문가들에게 인기가. 하지만 이 대학 광고미디어MBA는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광고, 미디어, 문화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을 탐방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 서구원 주임교수는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학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 MBA 서구원 교수와 학생들이 중남미문화원 이복형 전 대사, 홍갑표 이사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생들은 오프라인에 대한 욕구가 높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석률이 높다"고 말했다.

광고미디어MBA는 매년 MBC, YTN 등 미디어 제작 현장은 물론 경기도 고양시 소재 중남미문화원을 방문한다. 특히 중남미문화원에서는 35년 이상 중남미 대사를 지낸 이복형 전 중남미 대사와 홍갑표 이사장과 직접 만나 문화원의 철학과 중남미 문화에 대한 신 지식을 습득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유명해진 '성수동 문화의 거리', 청년창업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언더스탠드 예비뉴', '인사동 한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프라인 대학보다 더 많은 현장 교육이 진행된다. 또 업계 전문가 초청 강연이 이뤄지고 매년 여름방학에는 일본 리츠메이칸대(立命館大)와 학생 상호 파견을 통해 양국 산업을 직접 체험하기도 한다.

/한용수 기자

## 이화여대

### 재학생·교직원 등 150여 명 '김장 3.5톤' 담가 이웃 전달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8일 오전 교내 교직원식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이화여대가 2001년부터 18년째 지속하는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행사는 자원봉사에 나선 이화여대 재학생과 교직원, 외부 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3.5톤 규모의 김장김치를 담근다. 담근 김치는 인근지역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성환자 등



지난해 이화여대가 진행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모습.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350여 가구에 가구당 10kg씩 전달된다.

이화여대는 지난해에도 김장을 담가 인근지역 350여 가구에 제공하고 후원금 모금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24명에게 장학금 약 12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한용수 기자

# 네이버·엔씨 급여 뛰어넘은 '슈퍼벤처기업'은?

## 사람인, 매출 1000억 이상 311곳 설문 씨에스윈드, 직원 평균 9200만원 급여 상위 10개사 평균 8200만원

연 매출액 1000억원을 넘는 '슈퍼벤처기업' 상위 10개사의 평균 급여는 8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인당 평균 9200만원을 지급한 씨에스윈드가 평균 급여 1위를 차지했다.

사람인은 벤처기업협회가 올해 발표한 '2017년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 명단(572개사)'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7년도 사업보고서를 낸 311개

사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7일 밝혔다.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연봉·수당·성과급 등 포함 실질급액 기준)가 높은 상위 10개 기업으로는 씨에스윈드가 92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에스에프에이가 8405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테스(8400만원) ▲톱텍(8400만원) ▲고영테크놀러지(8300만원) ▲엔씨소프트(8277만원) ▲네이버(8233만원) ▲유진테크(8000만원) ▲동양피스톤(7427만원) ▲텔레칩스(7311만원) 순으로, 8개 기업이 평균 급여 8000만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들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급여는

819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람이인 올해 초 조사한 2017년 기준 국내 30대기업의 직원 평균 급여 8300만원에 비해 불과 100만원 가량 차이 나는 금액이다.

1인당 평균 급여 상위 기업은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 평균 연봉은 ▲씨에스윈드(9800만원) ▲네이버(8961만원) ▲고영테크놀러지(8600만원) ▲에스에프에이(8550만원) ▲테스(8500만원) 순으로 높았고, 여성의 경우는 ▲유진테크(9300만원) ▲네이버(7041만원) ▲텔레칩스(6340만원) ▲고영테크놀러지(6300만원) ▲톱텍(6100만원) ▲엔비에이치코리아(5700만원)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